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 현황과 증진방안

- 이재영 구미·유라시아본부장
(lly@kiep.go.kr, Tel: 044-414-1089)
- 권가원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kwgwun@kiep.go.kr, Tel: 044-414-1124)

차 례 ●●●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몽골의 전략적 가치
2. 한·몽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3. 주요국의 대몽골 경제협력 현황 및 시사점
4. 몽골 경제전망과 한·몽 유망 경제협력 분야
5. 한·몽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주요 내용 ●●●

- ▶ 최근 국제 정치 및 경제에서 유라시아 대륙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증대하면서, 유라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국의 전략과 구상이 앞다투어 제기되고 있음.
 -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이란 3대 비전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에서 몽골은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몽골의 전략적 가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몽골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 그러나 한·몽 협력관계는 여전히 양국이 보유한 잠재력에 비해 미흡하므로, 유망 협력분야를 선정해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 체계적인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5월 18~20일 차히야 엘베크도르지(Tsakhia Elbegdorj) 몽골 대통령이 2009년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바, 한국과 몽골은 이를 계기로 양자 및 다자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상호 전략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한편 몽골과 지리적 근접성, 역사적·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교역 및 경제협력을 확대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중국 주도의 신실크로드 정책을 중심으로 중·몽·러 3국간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으며, 일본은 고위층간 빈번한 교류, 선도적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바탕으로 2015년 몽골과 최초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함.
 - 몽골의 최대 수출국이자 주요 투자국인 중국은 몽골과 지리적 근접성,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왔음.
 - 러시아와 몽골은 1921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에너지, 교통 인프라 등의 분야에 있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왔으며, 2016년 4월 14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중기 계획’을 체결해 향후 5년간 양국 경제협력의 방향을 설정함.
 - 러시아, 중국, 몽골은 지정학적 근접성을 토대로 한 유라시아 연계전략의 일환으로 ‘중국-러시아-몽골 경제회랑’ 구축을 발표하면서 3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 한국의 대몽골 진출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으나 중국, 러시아, 일본과 비교해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과 몽골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와 협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아직도 양국간 경제협력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이에 한국은 대몽골 협력에 있어 유망 협력산업 발굴, 정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몽골과 보다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몽골 간의 유망 협력분야로는 △ 교통·물류 인프라 △ 광물자원 개발 및 가공 부문 △ 건설 분야 △ 플랜트 분야 △ 농목축업 및 관광 분야 등을 꼽을 수 있음.
 - 한·몽 협력 확대방안으로는 △ 정상회담의 정례화 △ 양국간 사증면제협정 도입 △ 자유무역협정 체결 △ 한·몽 의원친선협회의 활성화 △ 창조적인 대몽골 ODA 지원 등을 들 수 있음.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몽골의 전략적 가치

■ 최근 국제 정치 및 경제에서 유라시아 대륙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증대되면서, 유라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국의 전략과 구상이 앞다투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지난 10년간 중국, 인도, 러시아에 이어 중앙아시아, 몽골 등이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중요성이 커졌음.
-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5~14년 기간 동안 세계 전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7%였으나, 유라시아 주요국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표 1. 유라시아 대륙 주요국의 GDP 성장률

(단위: %)

	중국	인도	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세계 전체
2005~14년	9.9	7.7	3.4	7.3	8.9	2.7

자료: Global Insight(2015).

- 중국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전략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신동방정책’을 통해 구소련 지역의 경제통합 및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을, 그리고 몽골은 ‘초원의 길’을 통해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물류·운송의 가교역할을 하고자 매진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요 국정 어젠다로 설정하여 유라시아 대륙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하고자 힘쓰고 있음.

■ 한국정부는 2014년 12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유라시아 경제협력 로드맵’을 승인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5년 2월 각 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유라시아 경협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켜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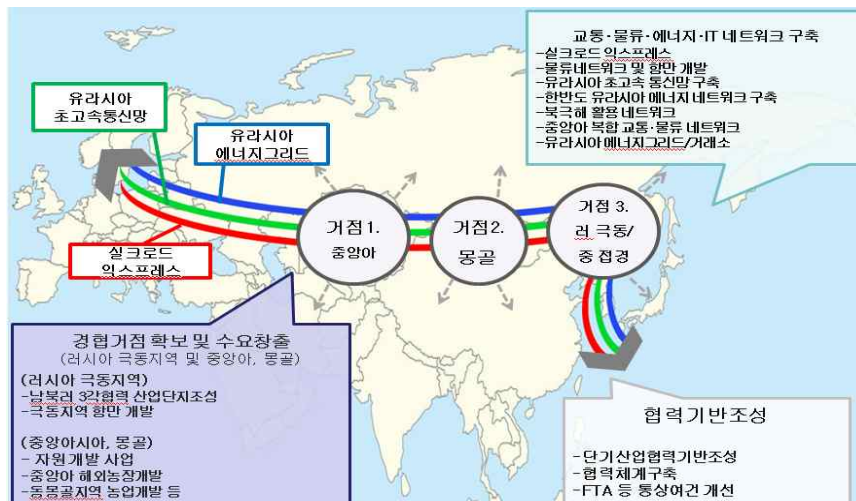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경제협력 로드맵에 따르면, 유라시아 지역의 광활함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협력 초기에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거하여 중앙아시아, 러시아, 몽골 등 주요 협력거점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유라시아 지역에 경협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이를 위한 협력기반 조성을 계획함.
- 유라시아 경협 네트워크에는 복합 교통물류 네트워크(SRX), 유라시아 초고속 통신망, 전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되고, 협력기반 조성에는 유라시아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 FTA 등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 몽골이 주요 협력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몽골의 전략적 가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몽골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 몽골은 세계적인 규모의 ‘타반 톨고이’ 석탄광산과 ‘오유 톨고이’ 금구리 광산 등 6,000개 이상의 산지에 80여 종의 유용광물을 보유한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이자,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서 이웃 국가인 중국, 러시아 외에도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이 이미 몽골에 활발히 진출해 있음.
- 몽골은 유라시아 교통망의 중요 거점인 동서, 남부 교차점을 차지하고 있는 까닭에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유라시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협력 대상국임.
- o 중국의 ‘신실크로드 정책’과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협력에서 몽골은 교통 및 물류운송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몽골은 광물자원 개발 외에도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건설·플랜트 분야, 농목축업 및 관광 분야 등에 있어 협력 잠재력이 높은 신흥개발 국가임.
- 실제 유라시아 경협 로드맵 속에 대몽골 자원개발, 농업개발, 교통 및 물류운송 등 다양한 협력 사업들 제안되어 있음(그림 1 참고).

그림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2014. 12).

■ 한·몽 협력관계는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26년간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히 발전해왔으나, 경제협력 차원 분야는 양국이 보유한 잠재력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므로, 유망 협력분야를 선정해 양국 정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 체계적인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한·몽 양자 관계는 1999년 ‘21세기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2006년 ‘선린우호협력 동반자관계’의 단계를 거쳐 2011년에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하였음.
- o 중국, 러시아, 일본은 몽골과 한국보다 한 단계 높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음.
- o 2015년 기준 한국 대몽골 교역은 2억 9,200만 달러에 불과하여 중국, 일본 등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배경하에 2016년 5월 18~20일 차히야 엘벡도르지(Tsakhia Elbegdorj) 몽골 대통령이 2009년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바, 한국과 몽골은 이를 계기로 양자 및 다자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상호 전략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2011년에 수립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경제 협력, 개발협력 및 인적 교류 등 실질협력 확대와 더불어 지역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할 계획임.
- 또한 양국 정상은 2016년 7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앞서 향후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하여 양국간 바람직한 국제협력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2. 한·몽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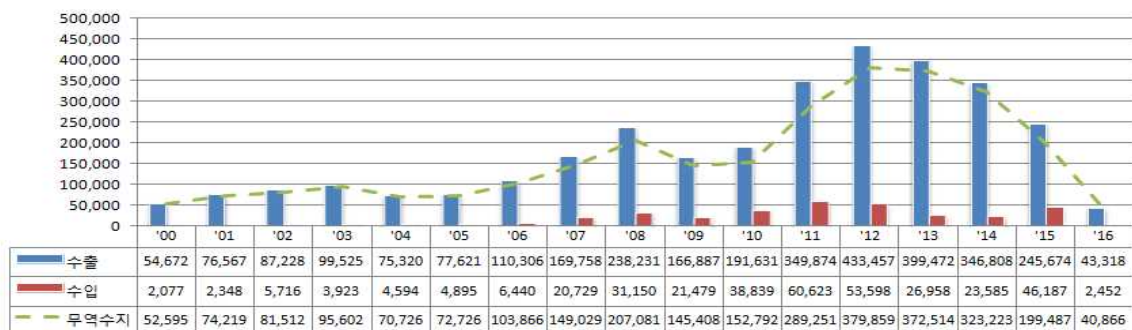
가. 교역 현황

■ 1990년 271만 달러에 그쳤던 한·몽 간 교역은 2012년 최고치인 4억 8,700만 달러에 달했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5년에는 2억 9,200만 달러를 기록함(그림 2 참고).

- 한국은 몽골의 5위 수출국이자 4위 수입국인 반면 몽골은 한국의 90위 수출국이자 106위 수입국임.¹⁾
- 한국의 대몽골 무역은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무역수지 흑자 구조를 띠고 있으며 2015년에 1억 9,9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 한·몽 교역은 2012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3년 연속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바, 교역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서는 몽골의 경제성장률 급락 및 환율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한국의 대몽골 수출 감소로 추정됨.

그림 2. 연도별 한·몽골 교역 현황(2000~16. 3)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5. 17).

1) 몽골에 대한 한국의 순위는 IMF 통계, 한국에 대한 몽골의 순위는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근거함.

■ 한국과 몽골 간 교역 불균형은 양국의 수출경합도가 크지 않다는 구조적 차이에서 기인하며, 특정 품목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표 2 참고).

- 한국의 대몽골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 화물자동차 등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 직물 등으로 최근 수년 동안 수출입품목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
- 한국기업이 이미 가능한 대부분의 품목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교역에서 선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본이 최근 FTA와 유사한 EPA(경제동반자협정)를 체결하면서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표 2. 한국의 대몽골 수출입 품목 현황(2015년 기준)

(단위: 천 달러, %)

	수출			수입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1	승용차	16,591	6.75	동괴 및 스크랩	22,100	47.85
2	화물자동차	16,195	6.59	기타 금속광물	12,544	27.16
3	윤활유	12,996	5.29	기타 비금속광물	5,682	12.30
4	연초류	9,219	3.75	편직제의류	1,093	2.37
5	화장품	9,083	3.70	건설중장비	1,040	2.25
6	철구조물	6,305	2.57	철구조물	470	1.02
7	음료	5,452	2.22	천연섬유원료	321	0.70
8	기타 플라스틱제품	5,451	2.22	육류가공품	299	0.65
9	건설중장비	5,239	2.13	기타 섬유제품	215	0.47
10	의약품	4,376	1.73	동물성한약재	203	0.44
	소계	90,907	37.00	소계	43,967	95.19
	총수출	245,674	100	총수입	46,187	100

주: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5. 17).

나. 투자 현황

■ 1994년 24만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대몽골 투자액은 2015년 3,883만 달러로 증가했으나, 2014년 누적액 기준으로 전 세계의 대몽골 직접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13%(2014년 누적 직접투자액 기준)에 불과한 실정임(표 3 참고).²⁾

- 한국의 대몽골 직접투자는 1994년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까지 연간 500만 달러 미만의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비약적으로 늘어나 2008년 역대 최고치인 6,041만 달러를 기록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한국의 대몽골 투자는 최근 몽골의 경제성장 둔화 및 국제원자재 가격 약세 등의 영향으로 다시 줄어들고 있음.

2) 1992년, 2015년 투자액은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2014년 누적 직접투자액은 IMF 통계를 근거로 작성.

표 3. 한국의 대몽골 직접투자 현황(1994~2015년)

(단위: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994~1999	23	14	13647	21	9002
2000	13	7	5457	15	2584
2001	9	5	4552	14	2634
2002	13	5	5715	13	2884
2003	11	8	4567	19	1337
2004	29	18	7931	48	3485
2005	52	25	14226	104	6705
2006	52	26	44129	119	19703
2007	102	55	50621	179	44433
2008	189	78	164916	261	60411
2009	114	46	123017	204	28285
2010	113	44	58271	161	27120
2011	132	52	59979	171	44118
2012	131	45	96043	187	56055
2013	114	32	59463	166	49215
2014	109	44	43394	141	32041
2015	109	32	83404	135	38833
합계	1,315	536	839,332	1,958	428,842

주: 2015년 4분기 비금융기관의 역외금융 투자실적은 미반영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검색일: 2016. 5. 16).

■ 한국의 대몽골 직접투자(1994~2015년 기준)는 대부분 광업(27.4%)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는 도소매업(17.2%), 건설업(12.8%), 부동산업 및 임대업(12.1%) 등의 순임(표 4 참조).

- 한국의 대몽골 투자는 초기에 주로 요식업 등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었으나, 점차 광물자원개발, 건설업, 부동산업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

표 4. 한국의 대몽골 업종별 투자내역 (1994~2015년 기준)

(단위: 건, 개, 천 달러, %)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투자비중
광업	252	48	282,286	412	117,600	27.4%
도매 및 소매업	287	135	131,889	365	73,603	17.2%
건설업	148	71	93,583	221	54,790	12.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7	43	100,114	235	52,064	12.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9	17	42,659	57	27,433	6.4%
제조업	141	80	61,750	195	21,578	5.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3	8	34,658	66	20,105	4.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1	39	21,386	82	16,805	3.9%
운수업	36	15	17,670	45	12,977	3.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9	17	19,709	66	12,097	2.8%

표 4. 계속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투자비중
숙박 및 음식점업	18	13	9,757	32	7,444	1.7%
농업, 임업 및 어업	52	13	9,282	76	4,695	1.1%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1	4,591	9	2,981	0.7%
금융 및 보험업	14	7	2,034	16	1,865	0.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0	6	3,000	12	880	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5	1,520	40	750	0.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7	11	2,672	19	676	0.2%
교육 서비스업	6	4	370	6	370	0.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	3	400	4	130	0.0%
합계	1,315	536	839,332	1,958	428,842	100%

주: 2015년 4분기 비금융기관의 역외금융 투자실적은 미반영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검색일: 2016. 5. 16).

다. 한·몽 경제협력의 평가와 과제

■ 한·몽 경제협력 수준은 한국과 몽골이 지닌 잠재력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는 주로 몽골의 열악한 투자 환경, 현지 정보 부족, 비행거리 대비 높은 항공료 등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짐.
- 이와 더불어 몽골 투자법의 빈번한 개정, 기존 투자정책과 관련된 정부 결정의 잦은 번복 등 법적·제도적 미비, 현지 금융산업의 미발달, 심각한 부정부패 등도 대몽골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예컨대, 몽골 정부의 빈번한 의사결정 번복 사례는 오랫동안 끌었던 오유 톨고이 및 타반 톨고이 입찰 과정에서도 나타났음.
- 한국과 몽골 간 비행시간은 약 3시간이지만, 왕복항공료가 80여만 원을 상회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 이외에도 몽골의 낙후된 인프라, 높은 물류비용이 상호 경제협력 및 교류 확대를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임.
- 한국기업들은 몽골의 유망산업인 광물자원 분야의 진출환경이 비교적 양호했던 2000년대 초에 몽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진출 시기를 놓쳤으며, 현재는 외국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몽골에 진출한 기업들은 불투명한 행정처리, 담당자의 잦은 교체, 계약불이행, 낮은 노동생산성 등도 몽골 진출의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음.

- 몽골의 사업 담당자와 조직의 잦은 변경에 의해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운영이 어려우며, 특히 건설 프로젝트 수행 시 하청업체들이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

- 한국에 비해 몽골의 인건비는 싸지만(한국의 약 1/3로 추정)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음.
- 2012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기업들은 몽골의 최신 시장정보 제공 전담기관 설립, 금융 지원, 몽골 전문 담당기구 신설 등이 정부가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이라고 답변함.³⁾
- 한국기업들은 몽골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전담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또한 몽골은 금융업이 발달하지 않아 기업들이 현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한국정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아울러 몽골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비자 편의 및 장기비자 발행이 여러 차례 제기된바, 중장기적으로 비자면제 협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주요국의 대몽골 경제협력 현황 및 시사점

가. 중국

- 몽골의 최대 수출국이자 주요 투자국인 중국은 몽골과 1971년 외교관계 복원 이래 지리적 근접성,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왔으며,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⁴⁾.
- 중·몽 관계는 '선린우호 및 상호신뢰 동반자 관계(200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2011년)',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2014년)'로 발전해왔음.
- 몽골의 광물자원과 중국의 시장, 자본, 기술 등 상호보완적인 협력구도 및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크게 확대된바, 2015년 기준 중국은 몽골의 제1위 교역국이자 5위 투자국임.⁵⁾
- 중국은 일대일로 계획의 중점 사업인 6개 경제회랑 건설의 일환으로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건설을 발표했으며, 2014년 9월 11일에 열린 첫 3자간 정상회담에서 중국-몽골-러시아 정상은 동 경제회랑 구축에 대해 합의함.

3) 이재영, 제성훈, 김홍진, 간투무르 몽크나트산(2012), 『몽골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전략지역심층연구 12-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중국과 몽골은 1949년 수교, '선린우호 및 상호신뢰 동반자 관계'였으나 60년대 중·소분쟁시기에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가 80년대 중반부터 관계가 급속히 개선됨.

5)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할 경우 중국은 대몽골 2위 투자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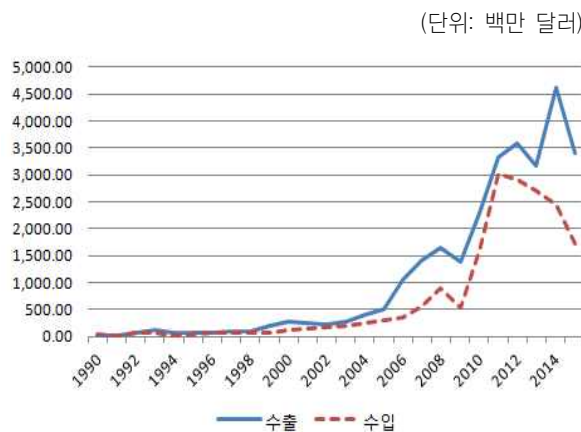
■ [교역] 2015년 기준 중국은 몽골의 1위 수출국이자 수입국임.

- 몽골의 대중국 수출액은 34억 1,2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84.38%, 수입액은 17억 2,9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39.66%를 차지함(그림 3 참고).
- 몽골의 대중국 교역은 수출이 수입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무역수지 흑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015년 16억 8,2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 몽골의 대중국 수출은 광물생산품(전체의 89%)에 집중되어 있으며, 몽골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은 치킨, 밀 가루, 쌀 등의 농산물, 섬유상품, 휘발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⁶⁾

■ 2014년 8월 중국과 몽골은 양국관계를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2020년까지 양국간 무역 규모를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함.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약적으로 늘어났던 중-몽 교역은 최근 중국의 성장둔화의 영향 등으로 2015년 전년 대비 27.0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그림 3. 몽골의 대중국 연도별 교역 추이(1990~2015년)



주: 수입은 CIF 금액기준, 수출은 FOB 금액기준임.
자료: IMF DOTS(검색일: 2016. 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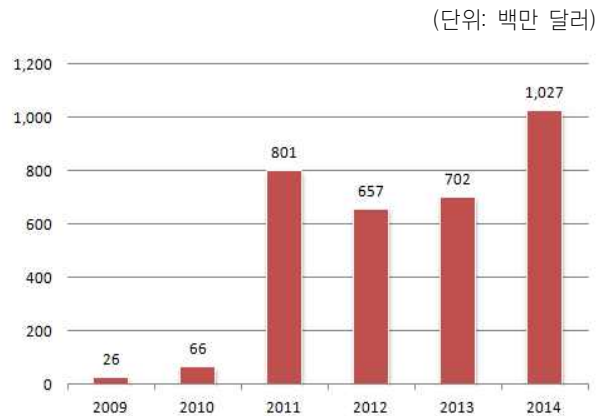
- 장기적으로 중국 성장 둔화 여부와 더불어 중국 내 대기오염과 초미세먼지 문제로 인한 석탄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회적 움직임, 중국 산업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중-몽 수출입 구조로 교역증진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함.⁷⁾
- 몽골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몽골의 대중국 석탄수출에 의존적인 편향된 무역구조에서 탈피하여 해외시장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6) Jeffrey Reeves(2015), *Chinese Foreign Relations with Weak Peripheral States, Asymmetrical Economic Power and Insecurity*, Routledge. (November 2); *Doing Business in Mongolia: Mongolia Trade and Export Guide*, GOV.UK. (검색일: 2016. 5. 15)
7) *Steppe Dispatches*(2015. 3. 23), "Mongolia: A Case Study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 [투자] 2014년 누적투자액 기준 중국의 대몽골 투자액은 10억 2,700만 달러로, 중국은 몽골의 5위(전체의 6.15%)투자국임(그림 4 참고).

- 중국의 대몽골 투자는 광물분야에 집중되어 있음.⁸⁾
- 중국의 대몽골 FDI는 2012년 몽골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자원개발 투자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감소했으나, 이후 몽골의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의 변화 등으로 다시 활성화되고 있음.
 - 2012년 몽골 정부는 「전략적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법(Strategic Entities Investment Law)」을 수립해 광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에 속해 있는 사업의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할 시에는 정부 심의 및 의회 승인을 의무화한 바 있음.
 - 또한 2012년 중국 알루미늄공사 차이날코(Chinalco)가 오유틀고이 광산의 대형 투자자인 캐나다 터키이즈 힐 리소스사(Turquoise Hill Resources)의 지분을 매입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국계 자본의 자국 시장 장악을 우려한 몽골 정부는 터키이즈 힐 리소스사 광산 개발권을 정지한 바 있음.⁹⁾¹⁰⁾
 - 그러나 최근 FDI 급감, 환율 불안, 원자재가격 약세 등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성장 둔화를 경험하고 있는 몽골은 중국 자본을 비롯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함.
 - 2014년 11월 취임한 사이한빌레그 총리는 이미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해외자본 유치에 주력하고 있음.

그림 4. 중국의 대몽골 FDI 유입 추이(~2014년, 누적액 기준)



자료: IMF CDIS(검색일: 2016. 5. 12).

나. 러시아

■ 러시아와 몽골은 1921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에너지, 교통 인프라 등의 분야에 있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8) Jeffrey Reeves(2015. 11. 2), *Chinese Foreign Relations with Weak Peripheral States, Asymmetrical Economic Power and Insecurity*, Routledge.

9) *WSJ*(2013. 2. 28), “Mongolia Suspends Two Mining Licenses.”

10) *Forbes*(2015. 2. 13), “Day 816: Mongolia Prefers Economic Suicide Over Ending SouthGobi Vendet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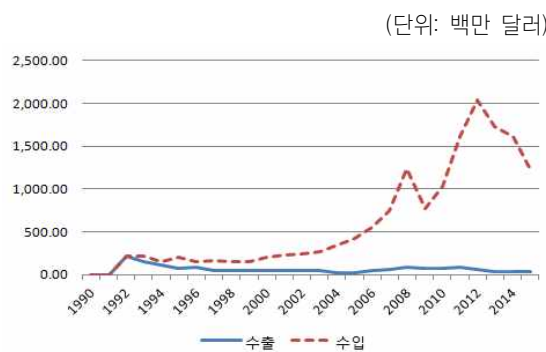
왔으며 2016년 4월 14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중기 계획’을 체결해 향후 5년간 양국 경제협력의 방향을 설정함.

- 몽골과 러시아는 1993년 ‘몽·러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음.
- 양국은 2016년 4월 14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중기 계획(Medium Term Strategic Partnership Development Program)’을 체결함.¹¹⁾
-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중기 계획’은 즉각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향후 5년간 무역경제 협력을 비롯해 정치, 국방, 안보, 법 집행, 인문, 국제 및 역내 협력 등에 있어 양국이 지향해야 할 협력 방향과 확대방안 등을 담고 있음.

■ [교역] 2015년 기준 러시아는 몽골의 2위 수입국이자 6위 수출국임.

- 몽골의 대러시아 수입액은 12억 2,9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28.19%, 수출액은 4,009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0.99%를 차지함(그림 5 참고).
- 러·몽 교역은 몽골의 대러시아 수입 규모가 수출을 훨씬 상회하는 만성적인 무역적자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바, 2015년에는 11억 8,9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
- 몽골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동물성 식품, 광물 등임.¹²⁾
- 정유시설이 없는 몽골은 자국에서 사용되는 석유제품의 74.7%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¹³⁾.

그림 5. 몽골의 대러시아 교역 추이(1990~2015년)



주: 수입은 CIF 금액기준, 수출은 FOB 금액기준임.
자료: IMF DOTS(검색일: 2016. 5. 15).

■ [투자] 2014년 누적투자액 기준 러시아의 대몽골 투자액은 1억 7,800만 달러(전체의 1.07%)로, 러시아는

11) TheUBPost(2016. 4. 15), “Mongolia and Russia sign mid-term program agreement to develop strategic partne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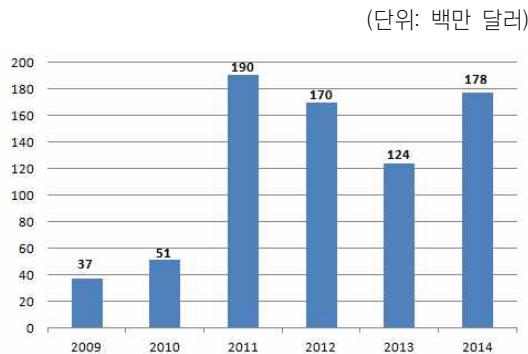
12) ENKHBOLD Voroshilov(2014), Mongolia’s Coking Coal Export Potentials in Northeast Asia, 한국경제연구학회. 석유제품의 비중은 2013년 기준.

13) WTO(2014. 4. 15),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Mongolia.”

몽골의 12위 투자국임(그림 6 참고).

- 러시아 기업의 대몽골 투자는 철도, 광업·석유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무역·요식업 분야, 수송분야, 건설분야, 금융분야, 식료품산업 등임.¹⁴⁾

그림 6. 러시아의 대몽골 FDI 추이(~2014년, 누적액 기준)



자료: IMF CDIS(검색일: 2016. 5. 12).

다. 일본

■ 1990년 몽골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래 일본은 고위층간 빈번한 교류, 선도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몽골과 협력을 강화해온바, 2015년 몽골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한 최초의 국가가 되면서 몽골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였음.

- 일본과 몽골은 1996년 ‘포괄적인 동반자관계’, 2010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해옴.
- 일본과 몽골은 고위층간 상호 방문이 빈번했으며, 지난 2010~15년간 몽골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한 바 있고, 아베총리 역시 몽골을 2회 방문함.
- 일본은 몽골의 최대 원조공여국(2014년 기준)으로, 일본의 대몽골 원조액은 5억 2,600만 달러에 달함.¹⁵⁾
- 2015년 2월 10일 일본은 국가들 중 처음으로 몽골과 EPA를 체결함.
 - 양국간 EPA 협정은 △협정 발효 이후 10년 내 관세철폐 품목 비율을 96%로 확대 △주력 4,500cc 이하의 완성차에 대한 5% 관세 즉시 철폐 △몽골의 자원·에너지 분야에 일본 기업 진출 시 내국민·최혜국 대우 부여 △EPA 협정문에 ISDS 조항 포함 등을 주요 골자로 함.¹⁶⁾

■ [교역] 2015년 기준 일본은 몽골의 3위 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 부상함.

14) Erdenebat Mungunzul, Taikoo Chang(2015), “The Impa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Mining Sector in Mongolia,”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Letters*, Vol. 114(Business), pp. 66-71.

15) ODA, 기타공적자금(OOF: Other Official Flows), 민간자금을 합한 금액임 (OECD DAC 통계, 검색일: 2015. 5. 18).

16) 日·몽골 EPA/FTA 합의, 자원개발 협력 강화, 한일재단 일본경제연구센터(등록일: 2014. 8. 21).

- 몽골의 대일본 수출, 수입 규모가 전체 수출,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1%(4,912만 달러), 6.35%(2억 7,700만 달러)임(그림 7 참고).
- 몽골의 대일본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 섬유제품 등이고, 주요 수입 품목은 중고차(대일본 수입의 45%), 건설 장비, 등임.¹⁷⁾
- 양국 정부의 관계 발전 의지에도 불구하고 몽골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일·몽 교역은 기대만큼의 성과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EPA 발효가 양국 교역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향후 일본과 몽골의 EPA가 발효되면 한국과 일본의 수출품목이 상당 부분 겹치는 몽골시장에서 일본은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도 전망도 나오고 있음.
-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했던 한국산 중고 자동차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제기됨.

그림 7. 몽골의 대일본 교역 추이(199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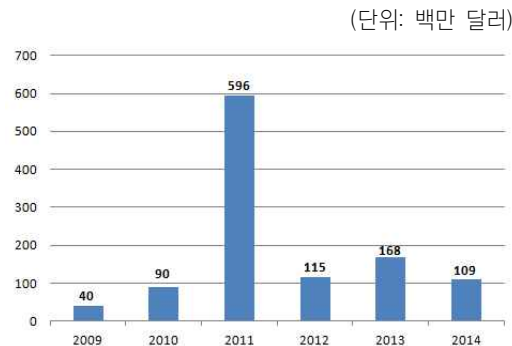
주: 수입은 CIF 금액기준, 수출은 FOB 금액기준임.
자료: IMF DOTS(검색일: 2016. 5. 15).

■ [투자] 2014년 누적투자액 기준으로 일본의 대몽골 투자액은 1억 900만 달러로, 일본은 몽골의 13위 투자국임(그림 8 참고).

-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정부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석탄 개발 및 석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증대되어 광업 분야에서 몽골과의 협력강화가 예상됨.¹⁸⁾
- 아울러 EPA가 발효되면 자원 개발에 대한 내국민 또는 최혜국 대우가 부여되기 때문에 자원 개발에 대한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17) ENKHBOLD Voroshilov(2014), Mongolia's Coking Coal Export Potentials in Northeast Asia, 한국경제연구학회, *The Japan Times*(2014. 6. 22), “Japan, Mongolia ink free trade agreement”; IHS(2015. 2. 10), “Japan Mongolia sign free trade agreement.”
18) Nobuto IWATA Professor/Dr. Aoyama Gakuin University, Japan-Mongolia FTA and mineral resources.

그림 8. 일본의 대몽골 FDI 추이(~2014년, 누적액 기준)



자료: IMF CDIS(검색일: 2016. 5. 12).

라. 시사점

■ 중국과 러시아는 몽골과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교역 및 경제협력을 확대해왔으며, 최근 중국 주도의 신실크로드 정책을 중심으로 중·몽·러 삼국간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음.

- 몽골은 중국,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는 여전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중국은 몽골과 지리적 근접성,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몽골의 1위 교역국의 자리를 유지해왔음.
- 러시아, 중국, 몽골은 지정학적 근접성을 토대로 한 유라시아 연계전략의 일환으로 ‘중국-러시아-몽골 경제회랑’ 구축을 발표하면서 3국간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일본은 정상간의 빈번한 교류, 꾸준한 ODA 지원, EPA 체결 등을 통해 몽골의 주요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일본 또한 중국, 러시아에 이어 몽골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일본은 몽골과의 빈번한 정상회담과 선도적 ODA 지원을 통해 몽골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왔고, 양국간 지리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가들 중 처음으로 EPA를 체결함.

■ 한국의 대몽골 진출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으나 중국, 러시아, 일본과 비교해 뒤처진 실정임.

- 이에 한국은 대몽골 협력에 있어 유망 협력산업 발굴, 정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몽골과 보다 체계적인 협력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한국도 몽골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

4. 몽골 경제전망과 한·몽 유망 경제협력 분야

가. 몽골의 경제 현황 및 전망

- 2010~13년 두 자릿수의 고도 경제성장률을 이룩했던 몽골은 최근 중국의 성장둔화, 외국인직접투자 급감, 국제원자재가격 약세, 환율 불안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음.
- 1990년 체제전환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개방과 안정을 이룩하고, 200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을 경험한 몽골은 중소득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고 있음.
- 2011~13년 기간 동안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몽골은 이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액 감소,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감소, 환율 불안 등의 영향으로 2014년과 2015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7.9%, 2.3%로 둔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표 5 참고).

표 5. 몽골의 최근 경제동향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¹⁾
실질 GDP 증가율	%	17.3	12.3	11.6	7.9	2.3
명목 GDP	십억 달러	10.4	12.3	12.6	12.2	11.7
1인당 GDP	달러	3,736.1	4,329.0	4,365.4	4,168.9	3,951.9
GDP 대비 총투자	%	58.2	55.9	53.3	35.2	26.2
평균CPI상승률	%	7.7	15.0	8.6	13.0	5.9
상품 수입증가율	%	52.2	20.9	-0.9	-9.6	-29.3
상품 수출증가율	%	27.5	8.0	12.1	41.8	-21.6
GDP 대비 경상수지	%	-26.5	-27.4	-25.4	-11.5	-4.8
GDP 대비 재정수지	%	-3.7	-8.3	-7.5	-8.8	-5.1
총인구	만 명	278.6	284.0	288.2	292.5	296.9
실업률	%	7.7	8.2	7.9	7.9	8.0
연말기준 총외채	십억 달러	9.63	15.39	19.00	20.94	21.60
외환보유고 ²⁾	십억 달러	2.28	3.93	2.10	1.54	1.43
평균 환율	투그릭/달러	1,266	1,358	1,524	1,818	1,970

주: 1) 외채를 제외한 수치는 IMF 추정치.

2) 금 제외.

자료: IMF(2016),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EIU(2016), *Country Report Mongolia*, (April 18); 몽골은행, Mongolia's Gross External Debt Position.

- 2016년에도 중국의 성장둔화, 국제원자재가격 약세 등의 하방요인이 지속되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2017년에는 오유 톨고이 제2단계 개발작업 착수, 국제원자재가격 회복 등으로 몽골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따르면, 2016년 몽골 경제성장률은 0.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나, 2017년 이후 반등하여 2018년에는 5.7%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임(표 6 참고).

표 6. 몽골 경제전망

	단위	2015	2016	2017	2018
실질 GDP 증가율	%	2.3	0.4	2.5	5.7
GDP 대비 총투자	%	26.2	29.9	36.6	40.4
평균 CPI 상승률	%	5.9	1.9	4.3	6.4
GDP 대비 경상수지	%	-4.8	-10.7	-17.7	-20.3
GDP 대비 재정수지	%	-1.9	-2.1	-1.8	-1.7

자료: IMF(2016),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EIU(2016), Country Report Mongolia, (April 18)

■ 또한 몽골이 최근 경험하고 있는 경제위축이 대외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견해가 강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몽골의 성장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몽골은 117억 달러에 불과한 GDP 규모, 296만 명 인구의 작은 내수시장, 내륙국가(landlocked country)로 인한 불리한 물류 및 운송 조건 등 경제성장에 부정적이 여건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석탄, 구리, 금을 비롯한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대규모 배후시장을 확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몽 경제협력은 1990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개발협력 등에서 크게 성장하여 몽골은 한국의 주요 협력파트너로 부상했으나,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와 협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아직도 협력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이에 한국과 몽골은 기존의 요식업 및 서비스업 중심의 협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현재 몽골 측의 수요와 잠재력이 큰 유망 협력분야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유망 협력분야

1) 교통·물류 인프라

■ 몽골은 국제수송망 체계 구축을 통해 내륙국가(landlocked country)라는 지리적인 요인을 극복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바, 교통물류의 전반적인 수준을 중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전략 중 하나임.

-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항구를 통한 해상 교통 인프라가 부재하며, 한반도의 7배가 넘는 넓은 영토 대비 인구가 적어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음.

○ 세계은행의 평가에 따르면 몽골의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는 2.36점으로 전 세계 160개국 중 135위에 그침.

- 몽골 정부는 밀레니엄 개발목표에 기초한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교통 및 운송 부문 발전정책’을 수립하고 도로, 철도, 항공, 수운 등 교통 인프라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몽골국회는 국회 결의안 32호의 부속 문서(2010년)에서 국가 철도교통 정책을 수립하여 광대한 내륙국가라는 지리적 조건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 기간교통망인 철도의 수송능력 제고 및 통합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몽골의 국가프로그램 ‘Transit Mongolia’는 통과국(Transit Country)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국제 운송·물류망과 연계성 강화 및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 수요가 높은 몽골의 교통·물류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 건설사는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몽골 현지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가능성을 모색하고, 수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몽골 정부는 한반도에서 출발하여 유럽까지 수·배송되고 있는 화물컨테이너의 몽골 철도 이용을 희망하고 있고, 남·북·러 간의 나진-하산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몽골 정부는 한반도철도망(TKR) 연결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자국에 흡수하고자, 한반도에서 출발하여 유럽까지 수·배송 되고 있는 화물컨테이너의 몽골 철도 이용을 판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¹⁹⁾
- 유럽행 화물이 몽골 철도를 경유하게 될 경우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며, 낙후되어 있는 인프라 및 매장 자원의 개발이 기대됨.
- 몽골 철도는 북한의 나진항, 중국의 천진항과 연계가 가능한바,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동몽골 철도를 나진항과 연계하는 양자 및 다자간 협력산업 추진이 가능함.

■ 아울러 중국은 일대일로 계획의 중점 사업인 6개 경제회랑 건설의 일환으로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건설을 발표한바, 한국기업은 동 경제회랑 건설로 주어질 진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4년 9월 11일에 열린 중국·몽골·러시아의 첫 3자간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은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구축에 대해 합의함.
- 동 회랑은 △ 중국 화북 지역 징진지-후허하오터-몽골-러시아 △ 중국 동북 지역 다리엔, 선양, 장춘, 하얼빈-만저우리-러시아 치타 등 2가지의 노선을 포함하고 있음.
- 중국의 경제회랑 건설사업은 중국 국영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지만, 자금조달 및 건설사업에 있어 외국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형태로 ‘일대일로’가 추진될 경우 연선국가들이 우려와 경계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한국 건설사가 중국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되면 사업의 리스크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²⁰⁾

19) 나희승(2016), 「한-몽 교통인프라 분야 협력 현황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간담회 발표자료 (4. 22)

20) 원동욱, 「중국 ‘일대일로’ 추진방향과 한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등록일: 2016. 3. 31).

2) 광물자원 개발 및 가공 부문

■ 광업 분야는 몽골 경제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협력 수준이 높지 않은바, 한국은 최근 외국인투자 급감을 경험하는 몽골의 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공기업을 중심으로 몽골의 자원개발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왔으나 사업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갔으며, 자원 개발에 성공해도 광물 운송과정에서 중국 또는 러시아를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최근 몽골의 급격한 성장둔화, 원자재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자원개발에 집중되어 있던 외국자본 유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바, 경제안보 차원에서 광물자원의 공급원 다각화가 필요한 한국은 몽골의 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2016년 6월 예정되어 있는 몽골 총선에서 현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산업정책과 제도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
- 한국은 몽골과의 자원분야 협력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고 몽골 정부와 합의하에 운송 인프라 및 자원개발 분야에서 몇몇 사업을 선정하여,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국기업의 투자를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의 철도 및 도로 수송망 등의 건설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²¹⁾

■ 한국은 몽골과 광업 분야의 협력에 있어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함.

- 몽골에서 개발한 광물자원을 한국 또는 타국으로 수출할 때 중국, 러시아 영토 경유가 불가피한바, 몽골 내부 운송과 더불어 한국정부는 중국 및 러시아와 협의하여 세관절차에 대한 협정 및 철도이용 쿼터 등을 확보해야 할 것임.²²⁾
- 한국으로의 광물자원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중국 철도 이용 시 석탄에 대한 컨테이너 포장 요구 및 회차 배정의 어려움이 있으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항 이용 시 높은 항구 이용비용 및 상차비용으로 막대한 운송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중국 또는 러시아와 컨소시엄 혹은 합작회사를 형성해 광산개발에 참여하는 것임.

■ 시장가치 극대화 및 현지에서 호의적인 국가 이미지 확립을 위해 상류 부문뿐만 아니라 하류 부문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몽골은 외국기업이 개발한 광물자원이 국내에서 가공을 거치지 않고 원자재 형태로 수출되는 것에 대해 부정

21) 이재영, 제성훈, 김홍진, 간투무르 몽크나산(2012), 『몽골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pp. 217, 전략지역심층연구 12-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2) 박정후(2016), 『한국-몽골 광물자원 협력현황과 발전전망』, 대외경제전문가포럼 발표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22)

적적으로 인식함.

- 몽골 정부는 광물자원의 개발뿐만 아니라 산업의 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광물자원의 현지가공을 장려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몽골에서 구리제련소, 제철소, 정유·석탄 가공공장 등에 대한 건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분야의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기타 진출유망 분야

■ [건설 분야] 도시개발, 주택 및 건설 시장 진출의 확대가 필요함.

- 몽골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에 밀집되어 있어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성도시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므로, 신도시 개발 전문기관으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참여할 경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몽골 정부는 2021년까지 철도, 도로, 터미널 건설 및 몇 개의 위성도시를 개발할 계획인 바, 이러한 인프라 개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2015년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주택, 상가빌딩, 호텔 건설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러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플랜트 분야] 한국은 몽골 플랜트 시장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포스코에너지사가 수주한 몽골의 제5발전소 열병합발전사업(BOT)처럼 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몽골은 자국에서 사용되는 석유제품의 74.7%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고 총 수입에서 석유를 비롯한 연료제품이 21.2%를 점하고 있어 석유정제시설 건설을 희망하고 있는바, 몽골 현지에 소형 정유공장 건설이 유망한 협력분야임.²³⁾
- 이외에도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존 우리늄을 활용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소형 원자력발전소 건설 참여와 더불어 풍부한 풍력과 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진출도 유망함.

■ [농목축업 및 관광 분야] 몽골의 농목축업 및 관광 분야는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진출이 유망함.

- 몽골의 농목축업 분야는 세계적인 잠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을 통해 현지 개발 수요를 적극 파악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동몽골 지역에서 농업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한국의 중소기업이 몽골의 육류가공에 적극 참여하여 생산제품을 러시아, 중국 등 인접지역으로 수출하는 것이 유망하다고 판단됨.

23) Mongolia, The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검색일: 2016. 5. 16).

- 몽골의 고비사막, 초원 등을 활용한 친환경 생태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바, 몽골과 공동으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한·몽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 한국이 대몽골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는 양국간 정상회담을 정례화하여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간 정치·경제 협력 현안 등의 논의를 통해 설정된 협력 목표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 중국, 일본은 몽골과 상호 빈번한 상호 정상방문을 통해 양국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고 확대됨.
 - 만약 정상회담을 매년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 격년제로 개최하여 전략적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몽골은 양국 사증면제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양국 인적자원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사증면제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필요가 있는바, 몽골인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 일정기간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지만 한국 방문 시 비자발급이 어려움.
- 한·몽 자유무역협정(FTA)은 단기적인 성과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몽골 자원외교 지원 및 정치 안보적 이익 등의 전략적 가치가 높으므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최초로 몽골과 무역협정을 체결해 몽골시장에서 다른 경쟁국에 비해 선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음.
 - 몽골에 FTA 관련 통상전문가가 부족하므로, 한국 전문가들이 몽골의 통상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경험을 전수하면서 점차적으로 FTA 타당성 공동연구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고위급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내실화가 필요함.

- 몽골의 이원집정부제 특성상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광물자원개발권을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회 '한·몽 의원 친선협회'의 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양국간 협력확대 창구로 활용해야 함.
 - 2016년 6월 말 몽골 국회의원 선거 이후 양국 의원간 교류 협력이 확대·강화되고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
- 양국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몽 도지사 및 시장 포럼' 등을 조직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양국의 학술교류 확대 및 상호연구 활성화 방안으로 '한·몽 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의 기금으로 몽골 내 '한·몽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한다면 몽골 관련 정보 수집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이미 몇 년 전에 울란바토르에 미국 몽골연구센터(American Center for Mongolian Studies)를 개설해 양국 학계 및 연구자들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하고 있음.²⁴⁾

■ 한국과 몽골 간 경제협력 및 문화·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항공회선 추가 도입을 통해 항공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한국과 몽골 간 비행시간은 약 3시간이지만, 왕복항공료가 80여만 원을 상회하여 양국간 협력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 따라서 몽골 정부와 협의하여 복수취항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몽골 내 한국의 국가이미지 개선 및 제고를 통해 보다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몽골에서 확인된 한류 현상은 한국의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일각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미미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엘리트들은 한국보다 미국, 중국, 일본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대몽골 투자확대와 더불어 한국기업의 지원 혹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몽골에 ‘칭기즈칸 박물관’과 나란히 한국전자도서관 혹은 한국문화관을 건립할 경우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막대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몽골 측은 칭기즈칸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시설 건설 부지를, 한국정부와 기업은 건설비용을 부담하여 상호 윈윈(win-win)하는 협력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일본과 중국은 몽골에 교량, 체육관, 상공회의소 건물 등 굵직한 사업들을 ODA 사업으로 추진하여 몽골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음. KIEP

24) 이재영(2010), 『21세기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아태지역연구센터 제1차 한-몽골 포럼 자료 (12월)